

민주 원내대표 후보 막판 부동산 잡기 총력

오늘 경선...토론회서 '준비된 사령탑' 차별성 부각

결선투표 가능성...김동철·우윤근 표심 결집 주목

민주당 원내대표 경선을 하루 앞둔 14일 후보들은 지지 후보를 아직까지 정하지 않은 부동산잡기 총력전을 펼쳤다.

지역 정치권은 지난 전당대회에서 호남 정치권이 지도부에 진출하지 못함에 따라 이번 원내대표 경선 결과를 주목하고 있다.

원내대표 주자인 김동철, 우윤근, 전병헌 의원은 현재로서는 후보도 1차 투표에서 재적(127명)의 과반(64명)을 얻기가 어렵다고 보고, 결선투표에서 3위 득표자의 지지표를

흡수하기 위한 전략 마련에 부심했다.

당 안팎에서 결선투표가 이뤄지면 호남이 지역구인 김동철, 우윤근 의원 가운데 한 명이 진출할 수밖에 없어 사실상 후보단일화 효과가 나올 수도 있다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이와 함께, 각 후보 전영에서는 아직 당내 계파 간의 움직임이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고 있으나, 막판에 일부 계파의 결집이 있을 수 있다고 보고, 당내 동향에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특히, 세 후보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표 경선 토론회에서 '준비된 사령탑'으로서의 차별성 부각시키는 한편, 다양한 공약을 내세워 지지를 호소했다.

우선 김동철(광산 갑) 의원은 "박근혜 정부의 독주를 견제하는 것은 민주당의 일인데 태어나지도 않은 안철수 신당이 지지율에서 뒤지고 있는 실정"이라며 "기본으로 돌아가야 당내 계파 간의 벽은 허물어지고 국민은 마음의 문을 열 것"이라고 강조했다.

원내 운영 전략에 대해 김 의원은 "의원총회가 활성화 되고 내부토론을 치열하게 벌여 당론이 결정돼야 한다"며 "상임위 중심주의로 각 위원회별 전략이 수립돼야 하고 주제별 소규모 의총이 활성화 돼야 한다"고

밝혔다.

우윤근 의원은 "명분 있는 싸움엔 제 모두를 걸겠지만 그렇지만 않으면 협상하겠다"고 밝히며 "나는 매과도 비물기과도 아니다. 굳이 말하자면 파랑새라고 할 수 있다. 평소엔 은화하지만 동지를 지키기 위해선 목숨을 거는 것을 마다하지 않겠다"고 주장했다.

우 의원은 공약으로 ▲경제민주화 입법 ▲권력기관 개혁, 권력구조 개편 추진 ▲남북관계 정상화 특별위원회 운영 ▲상임위 중심주의 구현 ▲여성 초선의원 비례대표 적극 배려 등을 제시하기도 했다.

전병헌 의원은 "정부에 끌려가는 이도저도 아닌 존재감으로는 민주당이 살아갈 방법이 없고 수단도 마땅

치 않다"며 "협상을 압도하고 정국을 주도하는 존재감이 분명한 민주당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 의원은 이어 원내 "민주당 의원총회가 정국의 핵이 되고, 정국을 주도하는 결론을 만들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 각 후보들은 상대 후보들을 '술'에 비유해달라는 주문에 우윤근 후보는 김동철 후보를 향해 "갈끔한 보드카"에 비유했다. 김동철 후보는 전병헌 후보에 대해 "화끈한 '소주+맥주'로 비유했으며, 전병헌 후보는 우윤근 후보에게 "친근하고 넉넉한 '막걸리+사이다'"라고 말해 토론회장에 웃음이 오기도 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박대통령-황우여 대표 회동

박, 국가지도자 연석회의 확정 짓자

황, 홍보라인·인사시스템 개편 주문

박근혜 대통령은 14일 오후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와 월례회동을 갖고 대선 공약인 국가지도자 연석회의 구성에 대해 "이제는 확정지어야 되지 않는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조만간 김한길 민주당 대표도 만나기로 했으며, 6월 임시국회에서 검찰개혁을 매듭지어야 한다는 황 대표의 말에 공감을 표했다.

박 대통령과 황 대표는 지난달 초 청와대에서 비공개로 회동했으며, 이 자리에서 황 대표가 매달 정기적으로 만남을 갖자고 요청해 이날 첫 공개 월례회동이 성사됐다.

박 대통령은 지난해 대선 때 여야 지도자들이 만나 주요 현안을 논의하는 국가지도자 연석회의를 개최하기로 제안한 바 있다. 박 대통령은 "국가지도자 연석회의는 대선 기간 약속을 했고 그동안 여러번과 얘기도 나누고 했다"고 설명했다.

황 대표는 박 대통령과의 회동 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야당(원내대표) 구성이 끝나면 조속한 시일 내에 김한길 대표 등 야당도 같이 만나자고 제안했고, 대통령도 꼭 하시겠다고 하더라"고 전했다.

황 대표는 또 박 대통령과 고위 공직자 인사와 검찰 강화 부문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전했다. 황 대표는 "박 대통령이 인사와 검찰 분야는 많은 생각을 하고 있었다"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많은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는 상황이었다"고 소개했다.

박 대통령은 특히 공직자 감찰 문제와 관련해 "우리(청와대) 비서실을 감찰해야 할 정도가 되면 되겠느냐. 그것은 이미(비서실) 자격이 없는 것이 아니냐"고 반문할 만큼 공직 기강 강화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다고 황 대표가 전했다.

이에 앞서 새누리당은 이날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긴급 최고위원 간담회를 소집, 박 대통령에게 홍보라인과 인사시스템의 개편을 주문하기도 했다. 회동에 앞서 의제를 조율한 것이다.

당의 이 같은 입장은 당 부설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소가 최근 실시한 자체 여론조사에서 윤창중 전 대변인 사건 이후 국정지지도가 10%포인트 가까이 급락한 것과 무관치 않다.

당내에는 이번 사건에 미온적으로 대응했다가는 자칫 여론 전체가 공멸할 수 있다는 위기감이 따른 것이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민주 의원 1년간 출석 성적표

김영록·이윤석 '개근'



김영록 의원 이윤석 의원

민주당이 14일 소속 의원들의 지난 1년간 각종 회의 출석 '성적표'를 공개, 눈길을 끌고 있다. 우선 19대 국회 출범 이후, 지금까지 국회 본회의에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출석한 민주당 의원은 모두 16명으로 나타났다.

문희상 전 비상대책위원장과 박기춘 원내대표, 노영민 의원, 김영록, 김태년, 안규백, 이윤석, 정청래, 홍영표, 김민기, 박남춘, 서영교, 유대운, 유은혜, 인제근, 임수경 의원 등이 100% 출석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민주당 의원총회, 워크숍 출석률 상위 10%에는 박기춘, 이윤석, 박홍근, 박지연, 은수미, 최민희, 김상희, 윤관석, 김기춘, 김영록, 문희상, 부좌현, 정성호, 홍영표 의원 등이 포함됐다.

상임위원회는 위원장을 제외하고 출석률이 높은 3위까지만 집계했는데 광주·전남지역에서는 법제사법위 박지연 의원, 정무위 강기정 의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김영록·김승남 의원, 국토해양위 임내현·이윤석 의원 등이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민주당 원내대표 경선을 하루 앞둔 14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후보 합동토론회에서 김한길 대표와 박기춘 원내대표가 후보들과 손을 모으고 기념촬영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동철, 전병헌 후보, 김우남 선관위원장, 김 대표, 우윤근 후보, 박 원내대표. /연필뉴스

박기춘 원내대표 "박대통령 방미 다양한 성과 있었다"

마지막 회의 주제 '성추행 사건' 불구 이례적 언급

민주당 박기춘 원내대표가 14일 박근혜 대통령의 미국 방문 결과와 관련, "성추행 사건에도 불구하고 방미 성과는 성과대로 평가돼야 한다"고 밝혀, 주목받고 있다. 이날 당 원내대표로서 마지막 회의를 주재한 박 원내대표는 "한미동맹 강화, 대북문제

공조, 경제협력 및 문화교류 협력 증진 등 여러 분야에서 다양한 성과를 거뒀다"며 야당 지도부로서는 이례적으로 이같이 언급했다.

박 원내대표는 나아가 "박 대통령이 하루에 3~5개의 일정을 소화하고 4박6일간 일정 내내 감기약을 복용하

며 강행군을 했다"는 보도를 접하고 안쓰럽기까지 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그러나 박 원내대표는 "부적격자의 방종을 화를 부르고 무능력한 참모들이 화를 키우 오랫동안 정성껏 준비해온 방미 성과가 날아 가버린 점은 아쉽다"며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의 성추행 의혹에 비판의 날을

세웠다.

박 원내대표는 "이번 일을 계기로 박 대통령은 스스로 리더십을 되돌아 봐야 한다"면서 "윤창중 씨와 같은 부적격 인사가 다시는 발탁되지 않도록 인사에 대한 대통령의 인식 전환이 있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임기가 4년 8개월 이상 남은 대한민국 대통령에게 임기 하루 남은 대한민국 제1야당 원내대표가 드리는 마지막 고언을 들려듣지 말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여야 '갑의 횡포' 막기 법제화 나서

징벌적 손해배상·집단소송제 도입 등 추진

여야가 '갑(甲)의 횡포'를 막기 위한 법제화에 나섰다.

새누리당 전·현직 의원 모임인 '경제민주화실천모임(경실모)'은 14일 국회에서 '대기업-영업점 불공정 거래 근절 정책간담회'를 열어 불공정한 갑을 관계 해결 방안을 모색했다.

경실모는 이 자리에서 이종훈 의원 대표 발의로 이른바 '갑질'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도입 ▲집단소송제 전면 도입 ▲사인의 행위금지 청구제도 도입 ▲공정위 결정에 대한 고발인(신고인)의 불복 기회 부여 ▲내부 고발자 보호 및 보상 강화 등 5대 개선사항을 반영해 공정거래법을 개정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 의원은 남양유업을 통해 드러난

대표적인 불공정 사례로 ▲떨어내기 ▲금품요구 ▲유통기한 압박 ▲보내기 ▲과견사원 임명 부담 ▲재계약 해지 압박 ▲증거은폐·데이터 조작 등을 꼽았다.

민주당은 아예 대리점의 '떨어내기' 피해를 막기 위한 법안을 제정하기로 했다. 민주당 이종걸 의원은 참여연대의 입법청원을 받아들여 대리점거래 공정화법 제정안을 발의하기로 했다.

제정안은 대리점이 구입할 의사가 없는 상품을 구입하도록 본사가 강제하거나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의 반품을 금지할 경우 대리점이 입은 손해의 최대 3배까지 배상하도록 하는 게 주요 내용이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광고영업사원 모집

창사 61주년을 맞은 호남 대표 정론지 광주일보사가 참신한 일꾼을 널리 구합니다. 신문과 방송, 모바일이 어우러진 본격적인 융합미디어 체제를 갖춘 광주일보에서 새로운 미래를 개척하십시오. 창의적이고 능력있는 분들의 참여를 기대합니다.

- 1. 모집대상**
 - 가. 모집부서 : 광고영업지(남 0명, 여 0명)
 - 최종합격자에게 회사 규정에 의한 직위 부여
 - 나. 전형방법
 - (1) 1차 : 서류전형
 - (2) 2차 : 면접
 - 다. 자격 및 대상
 - (1) 1960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 (2) 각종 영업부문 경력자 우대
 - (3)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남자는 병역필 또는 면제자)
- 2. 제출서류**
 - 가. 이력서 1 통
 - 나. 자기소개서 1 부
 - 다. 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함) 1 부
 - 라. 자격증 및 면허증 사본(소지자에 한함) 1 부
- 3. 전형일정**
 - 가. 서류접수 : 2013. 5. 8(수) ~ 5. 20(월) 방문 또는 우편접수
 - 나.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013. 5. 22(수) 개별통보
 - 다. 면 접 : 2013. 5. 24(금)
 - 라. 최종합격자 발표 : 2013. 5. 27(월)
- 4. 서류접수처**
 -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7가 20-2 무등빌딩 16층
 - 광주일보사 경영지원본부 ☎ 220-0514 우. 501-711

※우편접수는 2013. 5. 20(월) 소인분까지 유효함.
※제출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61 광주일보사

광주 동구 제-008호(동구 경계로 608-2504)

유)그랜드대부

최저이자
명품대출!

- ▶ 고액대출환영
- ▶ 사업자금대출
- ▶ 미준공건물
- ▶ 공유지분대출

※자사대출/ 자유상환/ 수수료없음 ※
최저 월1%~월3% 최고 연39%이내

광주 동구 불로동 121번지 그랜드힐 116호
062)228-0114, 010-4601-8942

매매

주인 직매함

010-4667-9300

목포. 2호 광장 코너

- 대지145평, 건물433평, 2004년도 신축
- 6층 건물, 1~5층 상가, 6층 고급주택
- 감정가/시세-16억5천만원
- 임대-보3억원에 월1800만원(임대중)
- 대출-7억3000만원(이자 월380만원)
- 매매가-15억3000만원
- 수입-5억원 투자에 월1420만원
- 이전비 없음, 총별 분할 매매, 즉시 입주 가능
- 1/2 매매 가능(동업)